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정의 생명을 위해 한국에 들어와 병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1차에 아기가 찾아왔고, 이제 15주차 되어갑니다.

첫임신이라 모르는게 많지만, 자녀를 향한 하느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니 은혜입니다.

[네팔-러수아 샤프루베시 교회]

지난 편지에 러수아 땅의 네팔 아이들을 향한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원래 러수아에서는 두 마을(띠므레 교회, 샤프루베시 교회)에서 4역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띠므레 마을이 기독교 반대가 커서 보안을 문제로 보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도하심이 있었던 교회여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아직 타이밍이 아니라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시고, 믿으므로 뚫어야 하는 문제라면 저희와 띠므레 교회 4역자들이 성령 안에서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샤프루베시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3월에는 히말라야 네트워크에서 같이 기도모임하는 선생님들께 비전을 나누었고, 저희까지 총 일곱 가정의 러수아 4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4월에 방과후 공부에 필요한 책상, 책꽂이를 만들어 보내고, 아이들의 교육을 맡아주실 선생님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아이들의 교육과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네팔의 우기인 몬순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선생님들께서 러수아 방문이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그동안은 교목스님과 아이들 선생님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전달 받게 될 것 같고, 우기시즌이 끝나는 9월 말이나 10월에 동역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일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팔-람자콧]

카트만두에 교제하는 라지꾸마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레이스 바이블 성경학교를 운영하시면서 네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깊이 알고 4역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데,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성경을 가르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편지에 다시 나누겠습니다.

라지꾸마르 목사님 고향이 바로 람자콧인데, 이곳에도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전도를 위해 방과후 학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 습니다. 이곳은 다른 선생님들께 동역 요청을 드리지 않고, 러수아 4역을 열었던 멤버인 두 가정과 저희만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람자콧은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약 225km 떨어진 곳에 있는 지역인데,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자재비가 너무 비싸서 카트만두에서 책상과 부자재들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아쉽게도 선생님들께서 방문하려 했지만, 가는 길에 산사태가 크게 나고 많은 비로 인해 여러 길이 막혀서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곳 역시 우기 시즌이 끝나면 방문을 하게 될듯 합니다.



다행히도 람자콧 방과후학교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32명이 매일 참석하고, 다른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고 한답니다. 람자콧 교^ㅎ 4억에 큰 힘이 된다고 하니 정말 기쁩니다.

러수아와 람자콧 4역을 위해 가르칠 선생님을 고용하고 아이들의 간식비와 학용품 등을 지원하는데 매월 한 아이에게 오롯이 들어가는 재정이 러수아는 10,000원, 람자콧은 15,000원입니다(행정/진행/이동 비용은 모두 저희가 따로 감당합니다).

지금은 약 55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태복음 18장 5절-

러수아와 람자콧 지역의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기쁨이 있도록, 학생으로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이 4역을 통해 어린이 예비가 세워지고 아직 믿지 않는 아이들이 복음에 마음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들으며 자란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좋은 믿의 군사로서기를, 함께 소망함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년 7월 신이삭, 함리브가 드립니다.